

“졸업 특수도 옛말”... 꽃 판매 저조로 화훼업계 울상

꽃값 상승에 고물가 영향 겹쳐 화훼공판장·꽃집 손님 발길 ‘뚝’ 저렴한 중고 꽃다발 거래 성행 상인들 운영 어려움에 한숨 늘어



14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광주원에농협화훼공판장이 졸업 시즌임에도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졸업 시즌을 맞아 ‘졸업식 특수’를 기대했던 화훼업계가 꽃 가격 상승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심지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졸업식 꽃다발을 사고파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화훼업계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 원예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절화(판매용으로 뿌리를 자른 꽃) 거래량은 14만526단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36% 감소한 수치로, 경매 금액도 지난해 912억원에서 올해 829억원으로 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꽃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로는 꽃 자체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튜립(스트롱골드)의 평균 경매가격은 양재화훼공판장 기준 1단(1송이)에 1만307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2배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프리지아(솔레이) 역시 3385원에서 4923원으로 45.4% 상승했

으며, 장미(실바씨니)도 2만4669원에서 2만6421원으로 7.1% 값이 올랐다.

물가도 상승했다. 지난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7(2020년=100)로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전남 지역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3(2020년=100)으로 전년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꽃 가격이 급등하다보니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 쓴 꽃다발을 저렴한 가격에 되파는 현상까지 생겨났다.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졸업식 꽃다발’을 검색해 본 결과 “사진만 찍고 판매합니다”, “깨끗하게 사용한

꽃다발 싸게 드려요” 등의 글과 함께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꽃다발이 거래되고 있었다.

‘중고 꽃’을 찾거나 생화보다 가격이 저렴한 ‘조화’, ‘비누 꽃’ 등 대체품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상인들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찾은 광주 서구 풍암동 원예 화훼공판장은形形色색의 꽃들로 가득했

지만, 정작 꽃을 구매하려는 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도매상은 “졸업식 시즌이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항상 꽃 수요가 많았는데,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사람들이 꽃을 사지 않고 대체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 같다”며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서 가격을 문의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지금은 조용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도매상 송모씨 역시 이른 아침부터 꽃을 손질해 뒀지만 찾는 손님이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송씨는 “우리나라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꽃을 산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요즘에는 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움츠러들면서 꽃을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 같다”며 “원래는 여기 있는 꽃이 거의 다 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수량이 한참 많이 남았다. 졸업 특수도 다 옛말이다”고 토로했다.

화훼공판장뿐 아니라 지역 꽃집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3)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을 맞아 미리 꽃다발과 꽃바구니를 만들어놨지만, 손님이 많지 않아 재고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꽃을 사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꽃을 사러 오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글·사진·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보이스피싱 송금액 40대, 항소심서 무죄

법원 “고의성 쉽게 인정할 수 없어”

보이스피싱 송금액을 맡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6)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완도군의 한

도로 앞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에게 현금 65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금 수거 장소로부터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 무통장 입금한 점, 입금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점 등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에 수상한 지시를 거둬들였는데 이씨는 이 지시에 모두 응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졸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교묘히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고의가 있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씨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당시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순천시 4억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경찰 추적

순천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4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60대 여성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달 초부터 10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순천 조례동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이 넘는 현금을 전달했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하며 A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A씨에게 “당신 명의로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돼 범죄에 연루됐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당일에도 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건넸던 A씨는 같은 날 추가 인출을 요구받자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닫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추적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